

지역 소식통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정읍시 '어울림' 운영

정읍시가 치매 환자의 예방과 치료를 넘어서 치매 환자 가족까지 보살핌 계획이다.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치매 정보 공유를 위한 자조모임 '어울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울림'은 치매 환자 부양 부담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노고를 지지 및 위로하고,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모임이다.

치매 가족들은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총 7회(매주 수요일) 모임을 통해 치매 환자 돌봄 팁과 행동증상에 대한 대처방법 등 정보를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 경감은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농기센터 7~29일 생활개선회 활성화 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7일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은 생활개선회 정읍시연합회원 37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2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실실에서 진행할 된다.

고구마케이크, 양념간장, 플케이크, 초코머핀 만들기 등 실습 교육을 통한 생활개선회 회원의 제과제빵 기술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더불어, 여성 농업인의 영농 활동 활력화에 도움을 주고 농업인 학습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돕겠다는 의지다. 교육 후에는 지역사회에 땀 기부 등 봉사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 김순아 회장은 "정읍 농업발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여성농업인, 나아가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역 집단감염 차단 주력”

권익현 부안군수, 간부회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대전과 광주 등에서 전복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감염과 관련해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등 유입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최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대전 및 광주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인근 시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모임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종교 행사 시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군청사 출입인원에 대해서도 인명부 작성과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2021년 국가예산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가 마무리되고 신규사업 등 미반영 사업에 대한 2차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가

예산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권 군수는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회를 위한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지난 2일 공식 출범하고 이달 중 사무국을 설치해 본격적인 대회준비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세계잼버리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잼버리 붐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성공적인 대회개회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수박, 이젠 커피빈 매장에서 즐기세요

고창군, 유통·가공·홍보 협약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고창수박이 국내 프리미엄 커피전문점 커피빈 전국 300개 매장에서 '고창수박 음료'로 판매된다.

고창군은 7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고창군-(주)커피빈코리아(대표 박상배)·(주)아라프룻(대표이사 고석경)·(주)모건푸드(대표이사 정형호)·(주)디마인드(대표이사 조재훈)와 함께 고창수박의 유통 가공 홍보에 관한 다년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커피빈 매장을 운영하는 (주)커피빈코리아는 고창수박뿐만 아니라, 북분자, 오디 등 배리류를 활용한 음료개발과 매장 홍보 등을 진행한다. 여름 대표 과일인 고창수박을 통해 같이 넣은 커피빈의 고창수박 음료는 고당도 수박의 맛과 향이 살아 있어 풍미가 뛰어나다.

(주)아라프룻은 고창수박의 안정적인 원물 구매와 공급을 담당하고, (주)모건



고창군은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고창군-(주)커피빈코리아(대표 박상배)·(주)아라프룻(대표이사 고석경)·(주)모건푸드(대표이사 정형호)·(주)디마인드(대표이사 조재훈)와 함께 고창수박의 유통, 가공, 홍보에 관한 다년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푸드는 고창수박을 원료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주)디마인드는 제품을 기존 1800개의 거래처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판매해 나간다. 고창군은 고창수박 등 고창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를 맡았다.

이번 협약으로 고창군은 고창수박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의 관로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외식업소 경영 컨설팅' 본격

정읍시가 외식 업소(일반음식점)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 업소를 대상으로 '외식 업소 경영 컨설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외식업 경영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급변하는 외식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외식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3일까지 모집공고를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평가(9개 분야)를 거쳐 경영개선에 적합한 5개 업소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에 선정된 5개 업소와 수행기관(오렌지나무시스템)은 7일 협약식을

맺고, 영업주의 고객관리와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영 컨설팅사업은 10월까지 컨설팅 전문가가 업소별 사전 진단에서 파악한 메뉴 전략개선과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등 업소 전반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영업 부진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각 업소가 겪고 있는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정읍=김대환기자



변산과 모항, 격포, 고사포, 위도 등 부안군 관내 해수욕장 5곳이 오는 11일 일제히 개장해 내달 16일까지 37일간 운영에 들어간다.

부안지역 해수욕장 5곳 11일 일제 개장

내달 16일까지 37일간 운영

부안군은 변산과 모항, 격포, 고사포, 위도 등 관내 해수욕장 5곳이 오는 11일 일제히 개장해 내달 16일까지 37일간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해수욕장은 깨끗한 바다와 고운 모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주변에 새만금방조제와 체석강, 적벽강, 내소사 등 관광명소가 밀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콘도와 펜션, 캠핑장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싱싱한 제철 수산물도 맛볼 수 있어 여름철 가족단위 휴양지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모항과 위도해수욕장은 올해 정부가 이용을 권장하는 해수욕장 25선에 선정돼 예년보다 많은 피서객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배사장 토양과 수질조사 실시를 완료하고 화장실과 샤워장 등 각

종 편의시설을 정비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준비했으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실제 군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구명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등 각종 구명장비와 안전관리요원 88명, 코로나19 방역요원 10명을 배치해 안전사고와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해경과 소방서, 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이고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부안의 해수욕장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해 여름 한철이 아닌 사계절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 첫발

통합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고창군의 문화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이 첫발을 뗀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6일) 오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통합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지역 문화예술, 건축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관심있는 일반 주민들까지 함께 해 큰 관심을 끌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고창읍 월곡지구 농어촌 뉴타운지구 내 4,078㎡의 부지에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총사업비 128억원이 투입되는 복합문화도서관은 지난 5월 건축설계안을 확정하고, 202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

계를 완료해 오는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에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더했다. 특히 이동가능한 가변형 서가구조를 도입해 고정돼 있는 공간이 아닌 변화하는 도서관을 제시했다. 인문학 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는 강의공간, 동아리 활동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앞으로 용역사의 제안사항과 중간·최종용역 보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검토·반영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전문사, 고인물, 고창음성, 상하농원, 고창청보리밭과 더불어 고창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